

## V. 日本 動靜

아시아에 대한 냉  
戰 시대의 인식 ·  
패러다임의 전환  
이 對아시아 정책  
의 전제 조건임

### 아시아 認識의 轉換 시급

- 일본의 독보적인 지위 종식
  - 금년초에 싱가포르가 OECD에 가입했고 한국도 9월에 가입하며, 3월초에는 ASEM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것임
    -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OECD의 유일한 멤버였던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으로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해짐
    - ASEM의 개최는 ASEAN이 유럽제국과의 관계 강화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단순히 「초대된 손님」에 불과함
- 수출 지향에서 직접 투자의 시대로
  - 현 단계의 아시아는 수출 지향에서 직접 투자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
    - NIES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제1위국으로 부상
    - 투자에 있어서는 華僑 네트워크가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
- 지역(차별)주의의 확산
  - 오늘날 아시아의 커다란 조류는 지역주의의 발달이며 ASEM의 개최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음
    - APEC의 확장과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ASEAN의 「외자도입 · 수출지향」과 경합하며 압박을 주고 있음
    -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 ASEAN의 지위와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ASEM의 개최는 ASEAN 생존 작전의 일환임
  - 아시아에서 지역(차별)주의가 확산 ·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대 추이에 맞는 아시아 인식과 패러다임 구축이 아시아 정책 구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

(「日本經濟新聞」, 2.29)

公害의 主犯은  
開途國이 아니  
라 先進 工業國  
임

「公害 덤핑론」의 모순

○ 開途國 「公害 덤핑론」

- 거대한 개발도상국(중국, 인도 등)이 무리하게 공업화를 추진하여 1인당 GNP 2000달러 정도가 되려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게 됨
- 개도국은 공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며 저임금·저기술로 값싼 제품을 수출하여 선진국의 고용을 압박하기 때문에 開途國의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논리임

○ 主要原因者는 先進工業國

- 오존층 손상, 지구 溫暖化, 海水面 상승 등의 지구 환경 파괴와 도시의 공해 오염 문제는 오히려 선진 공업국이 主要原因者이며 따라서 선진국 스스로가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함

(「世界經濟評論」, 2月號)

금융 개편은  
독일식 시스템을  
참고로 해야  
함

바람직한 獨逸式 金融 秩序

○ 責任 所在의 명확화가 선결 조건

- 주택금융전문회사(住專)의 파탄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량 채권 처리는 우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한 후에 바람직한 금융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

· 금융 개편을 할 경우에는 거품 경제를 경험하지 않은독일의 경제·금융 운영 방식을 참고하면 유익할 것

○ 독일 금융 질서의 특징

- 독일 은행은 융자 심사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토지 공개념에 철저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는 절대로 융자하지 않음
- 독일 은행의 감독 행정은 大藏省이 아니라 은행감독청에서 하고 있음
-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높으며 국민의 금융 자산 보전을 위한 통화 가치 안정에만 전념하고 있음

(「日本經濟新聞」, 3.1)